



■ 수학교과 과정중심평가 현장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 (2017. 6. 19.)

6. 23(금) 2시, 수포자 살리는 과정중심 수업 및 평가 토론회 개최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원도교육연구원은 6월 23일(금) 오후 2시에 강원도교육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학교과 과정중심평가 현장정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 중학생의 수학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수학 대안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실험하는 단계에서 과정중심평가 방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구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함.
-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학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중심평가의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고자 함.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김선희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서울 동성중학교 김보현 수학교사, 서울 여의도중학교 권선구 수학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3일(금) 오후 2시에 강원도교육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학교과 과정중심평가 현장정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3월 사교육걱정과 강원도교육연구원은 중학생의 수학기초학력 향상방안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연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수학 대안교과서로 실험 수업 및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중학생의 수학 학력 저하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수학 대안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실험하는 단계에서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구가 도출되었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여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방안에는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학교사들은 명확한 정답이 있고 결과적으로 꼭 답을 도출해야만 한다는 기존 수학 문제에 익숙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과정중심 평가 방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실험에 그치는 정도여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상황에서 수학교사들의 갈증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수학교과의 과정중심평가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김선희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서울 동성중학교 김보현 수학교사, 서울 여의도중학교 권선구 수학교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큰 방향성 안에서 수학교과의 과정중심평가가 현장 수업과 실재 평가에서 정착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중학생의 수학기초학력 향상 방안 연구 프로젝트

수학교과 과정중심평가 현장 정착 방안 토론회

일시 2017. 6. 23.(금) 14:00~16:30

장소 강원도교육연구원 대회의실

대상 수학교과 과정중심평가에 관심 있는 교사 및 일반인

접수 소속과 성명으로 사전 접수 (010-5133-4342)



사회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김선희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지정 토론	김보현	서울 동성중학교 수학교사, 전국수학교사모임 교육과정팀
	권선구	서울 여의도중학교 수학교사, 미래교실네트워크
진행	14:00 - 14:10	인사말 등
	14:10 - 14:40	김선희 교수 발제
	14:40 - 15:00	김보현 교사, 권선구 교사 지정 토론
	15:00 - 16:30	지정 토론에 따른 토론 및 플로어 자유 토론

주최  강원도교육연구원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06.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 고여진(02-797-4044/내선번호 508)
대표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13)